



미리암이 엘리자베스를 방문하다

2021년 12월 12일 설교
누가복음 1:39~56

설교 소개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 마리아라는 미혼 소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4~38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처녀인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 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하였으니 임신하지 못한다 하는 자와 함께한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37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천사는 그녀에게서 떠났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영예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Mary는 미혼이고 임신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라고 궁금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음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구약은 그녀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마리아가 한 믿음과 신뢰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녀가 말하길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리에 맡기다.”
”내게 해줘.”
내가 할 말인가?
잘 모르겠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기 어렵거나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때 ” 그대로 두십시오 ” 라고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 이상 “주님,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다른 왕들은 종종 하나님 대신 자신의 자원을 신뢰했습니다.

나도 그들과 같다.

안 그래?

나는 마리아가 ”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 라고 한 말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Thabiti Anyabwile 는 워싱턴 DC 의 목사입니다.

타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사야가 ”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 (이사야 6:8)라고 말하는 것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 죽으면 죽으리라 ” (에스더 4:16)라는 에스더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룯이 나오미에게 ” 네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리라 ” (룯 1:16) 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겻세마네 동산에서 ”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 (누가복음 22:42)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마리아가 미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신뢰했는지 정말 존경합니다.

천사의 기별을 받은 그녀는 서둘러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Mary 는 그녀의 작은 고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녀가 어떻게 임신했는지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역시 임신한 사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Mary 가 사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1 장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39~45

39 며칠 후에 마리아는 급히 유대 산지로 가서 성읍에 이르니

40 스가랴가 살았던 곳. 그녀는 집에 들어가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41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의 아이가 배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42 엘리사벳이 기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마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여자보다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네 아이가 복이 있도다

43 어찌하여 내가 존귀하여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44 내가 당신의 문안을 듣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45 네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으므로 네가 복이 있도다.”

함께 이사야서 40 장 8 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사가 되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성령으로부터 받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 즉 큰 생각입니다.

큰 생각: 내 영은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저와 함께 41 절을 다시 보십시오.

41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의 아이가 배에서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42 엘리사벳이 기뻐 부르짖으며 마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여자보다 너에게 복을 주셨으니 네
아이가 복이 있도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영어로 **Mary** 라고 부르지만 **Miriam** 은 그녀의 이름이 2,000 년 전에 발음된
방식이므로 둘 다 사용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기적적으로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될 만큼 나이가 많았고 평생 아기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노파로서 임신한 것은 엘리자베스의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미리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얼마나 관대한 여자였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미리암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43 절에서 엘리사벳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43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존귀하여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엘리자베스는 미리암의 존재로 인해 겸손과 영광을 느낍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미리암은 엘리자베스보다 훨씬 어리다.

미리암은 나이 많은 친척을 존경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미리암을 존경하고 그녀 앞에서 축복을 느낍니다.

왜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 미리암이 메시아를 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주님이시며 구세주가 자신의 집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절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미리암은 여성을 무례하게 대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여성은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생애 전반에 걸쳐 그가 극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고상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 예수님은 여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삶이 시작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두로 처음으로 선언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자베트는 미리암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엘리자베트의 마음에 심으시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인하기 오래 전에 엘리자베트는 ”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자베트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녀는 했습니다.

45절에서 엘리자베트는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이 주님으로부터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쿠리오스입니다.

이제 43절을 보십시오.

엘리자베트는 ” 어찌하여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게 하였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라는 단어는 다시 쿠리오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45절에서 여호와와 가브리엘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주님은 또한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자베트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처음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44절에서 엘리자베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를 듣고 내 뱃속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습니다.”

미리암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자베트와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둘 다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미리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사벳의 아들은 자라서 세례자 요한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남자로서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 세례자 ” 라고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 장 29-30 절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과 예수는 둘 다 약 30 세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날에 일어난 일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말하기를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내 뒤에 오나니 그는 나보다 오래 전에 계셨음이라 하였노라

요한은 사촌 예수보다 6 개월 위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 30 절에서 예수님이 ” 나보다 오래 전에 계셨다 ” 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30 절에서 예수님이 ” 나보다 훨씬 크심 ” 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동생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마치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사촌인 미리암을 공경하듯이.

나는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그의 타자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을 어느 정도 배웠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고 싶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28 세가 될 때까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0 만 명의 태아가 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낙태가 인간의 삶을 끝내지 못한다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4 절에서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존에게는 정신과 영혼이 있었습니다.

낙태는 태어나지 않은 실제 사람의 삶을 끝냅니다.

여성의 몸 안에 있는 태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존은 엘리자베스와 다른 DNA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할 수 있는 일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자유는 당신의 개인적인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납니다.

또한 누가복음 1 장 15 절에 따르면 요한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물이나 물건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기 석 달 전에 미리암의 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아기 요한은 구세주 예수를 아기로 만났을 때 기뻐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을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부 임신은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임신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고맙게도 미리암은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고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임신의 부끄러움을 미리암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아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남녀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삶, 삶의 모든 단계에서 생명을 지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의 끔찍한 낙태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요한과 엘리사벳이 본 것처럼 우리는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인간성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간단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이 많고 보호적이며 관대한 아버지의 완전한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어머니들을 도와주세요.

이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당신의 아이들인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낙태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입하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누가복음 1 장을 읽으면서 엘리사벳과 미리암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성들의 겸손, 신앙, 신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아들이 젊은 시절에 살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이 임신 중에 나누었던 기쁨은 슬픔과 울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과 미리암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 장 46-56 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예언적 노래를 봅시다.

46 마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영혼이 어찌하여 주를 찬양하는지라
47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이어!
48 이는 그가 비천한 여종을 돌보았음이라 이제부터 대대로 나를 복되다 하리라
49 전능하신 이가 거룩하시며 나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50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51 그의 능하신 팔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도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52 고관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셨도다
53 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54 그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자비로우신 것을 기억하사
55 이는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곧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약속을 주셨음이니라.”
56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 정도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엘리사벳과 미리암은 누가복음 1 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대화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성들은 말할 때 나처럼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두 여성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축복과 구원이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과 그의 성품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며 몇 분 동안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서 게시판의 몇 단어에 밑줄을 긋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노래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천천히 읽을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먼저 누가복음 1 장 46 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하느님과 이야기합니다.

47 년에 그녀는 그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49 에서 그녀는 ” 그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 고 말합니다.

50 절에서 그녀는 그의 자비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51 절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그의 강한 팔로 능력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또한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힘을 다르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교만한 자와 강한 자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51-53 절에서 마리아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흠으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합니다.

52 절에서는 권세 있는 고관들과 관원들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53 절은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부나 지위나 권력이 오만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승영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주로 인정할 만큼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만하고 강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왕에 대한 죄와 반역으로 죽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빠서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굽주린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50 절에서 그녀는 ”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공휼을 베푸시느니라” 고 말합니다.

52 절은 “그는 겸손한 자를 높이셨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53 에서: ”그는 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느니라.”

마리아는 또한 54 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도우시며 자비로우심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엘리사벳과 그녀의 아들 요한에게 계시하신 구주이십니다.

성령께서 또한 당신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면, 마리아의 아름다운 찬양 노래도 당신의 노래입니다.

친구 여러분, 얼마나 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까?

공의와 자비와 능력과 공휼의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는 특권.

이제 함께 그분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엘리사벳과 요한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선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